

판타지 어드벤처 Full 3D 애니메이션

지-스쿼드 (Z-SQUAD)



세 명의 주인공이 팀을 이뤄 마법을 풀어나가는 판타지 어드벤처 TV용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조만간 안방극장에 선보인다. 에네메스가 2002년부터 기획,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에는 해외에도 출품된 바 있는 <지-스쿼드(Z-SQUAD)>가 그 주인공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서 원구, 게임 등의 원소스멀티유즈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지-스쿼드>를 미리 만나본다.

글 신선자 자유기고가



밤하늘에 떠있는 별자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디오니소스·페르세포네·제우스 등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과 인간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신들의 이야기가 가치 있는 이유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원형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

에네메스가 기획, 제작해 오는 10월 말 SBS를 통해 방영되는 26부작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물 <지-스쿼드(Z-SQUAD)>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소녀들의 성장 과정에 바탕을 두고 기획된 작품이다.



인생의 원형을 찾아 떠나자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자 주인공은 이제 곧 사춘기라는 인생 최대의 원형 속으로 접어들게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와 싸우게 된다. <지-스쿼드>는 때론 질투하고 때론 무시하지만 결국엔 화해하며 서로를 이해해 가는 주인공들의 모험과 우정, 그 속에서의 갈등 과정을 그리고 있다. 우연히 발견한 마법책을 통해 변신을 하고 봉인된 마법을 풀어나가는 모험담을 각 에피소드별로 그려내고 있다. 판타지 어드벤처라는 장르를 전면에 내세운 풀 3D 애니메이션으로 국내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부활을 알리는 야심작이다.



세 명의 주인공 채니·헤미·지니는 오렌지 힐즈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들로 항상 친구들의 부러움과 화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주인공들은 어느 날 옆 학교에서 전학 온 '헨섬 삼인방'과 배구시합을 하게 된다. 이 시합에서 채니·헤미·지니는 패배를 맛보게 된다. 시합이후 이들의 인기는 사라지고 '헨섬 삼인방'이 오렌지 힐즈 초등학교의 새로운 영웅이 된다.

한편, 명성과 인기를 모두 잃고 평범한 학생들이 되어버린 채니·헤미·지니는 자신들에게 부족한



힘을 얻어 '헨섬 삼인방' 을 이기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마법사인 지니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마법책을 훔치게 되고 전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을 얻게 되는 '마법의 계약서' 에 서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계약이란 지-네이션(Z-Nation)의 왕자이며 메가벨트의 주인인 에르메스 왕자의 힘을 빼앗는 것이었다.

다른 차원에 있는 에르메스 왕자는 침입자 벌룬의 공격으로부터 지-네이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던 도중 메가벨트 속에 봉인돼 있던 36개의 주트(Zoot) 중 세 마리와 함께 지구에 떨어지게 된다.

이제 채니 · 헤미 · 지니는 위기에 빠진 우주와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힘을 잃은 에르메스 왕자를 위해 33마리 주트와의 대결을 통해 에르메스 왕자의 메가벨트에 크리스탈을 다시 봉인해야 할 운명에 처한다. 과연 세 주인공은 인생의 원형을 이해하고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자이상은 같은 독특한 캐릭터 돋보여

이러한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며 그 속에서의 갈등,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주인공들의 성장담, 그것이 <지-스워드>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36개의 통과 의례를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여행의 여정을 사춘기에 접어드는 주인공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매 에피소드마다 주인공들이 10대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보여준다. 때론 주인공들 사이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한편으론 '헨섬 삼인방' 과도 경쟁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세명의 주인공 캐릭터도 독특하다. 태권도, 스케이트보딩 등이 취미인 채니는 흥분하면 말을 잘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버릇이 있지만 용감한 마음을 지녔고, 발레가 취미인 헤미는 남들 앞에서는 단정하고 새침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긴장 풀린 모습을 보이는 새침떼기 소녀의 전형이다. 또 마지막 주





인공인 지니는 컴퓨터 게임과 체스를 즐기는 아이로 명석한 두뇌를 지닌 수재로 나온다.

저마다의 특징을 지닌 주인공들이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요 시청대상인 학생들 역시 자아를 돌아보고 함께 모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주인공들은 <지-스쿼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현실세계에서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갈등을 풀게 되는 형식이다.

TV용 애니 시리즈의 부활을 꿈꾸다

6세에서 14세의 초등학교생을 타깃으로 한 에네메스의 <지-스쿼드>는 에피소드별로 주인공들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제작을 맡은 에네메스는 2002년 설립된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회사로서 현재 디지털 영상 및 TV·극장용 3D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라이선스, 국내외 머천다이징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및 유럽의 제작사 및 배급사와의 연계를 통해 국내기업의 콘텐츠를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현재 미국 내 현지법인까지 거느리고 있는 에네메스는 <지-스쿼드> 외에 미국 디즈니에서 제작하고 있는 TV시리즈 <히글리 타운 히어로>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에네메스 측은 <지-스쿼드>가 어린이들에게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인격체로 성장시키고, 그 성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획의도를 반영하듯 이 작품은 매 에피소드마다 더 나은 성장을 위한 교훈적 내용을 듬뿍 담고 있다.

소년, 소녀들의 꿈과 희망, 우정, 성장하는 방법을 판타지 어드벤처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공중파 방송인 SBS 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만나게 될 예정이고, TV 방영 이후에는 극장판으로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SBS를 통해 향후 1년간 캐릭터 노출을 극대화해 케이블TV, 극장 등으로 라이선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해외진출 적극 모색

판타지 어드벤처를 표방하며 22분물 총 26편의 풀 3D 애니메이션으로 한창 제작중인 <지-스쿼드>는 에네메스 설립 이후 기획된 첫 자체 작품으로 3~4년간의 기획단계를 거쳐 지난해 데모버전이 처음 나왔고 이후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머천다이징 상품들도 함께 만들고 그에 따른 상품가치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원소스멀티유즈 창작 시리즈물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즌 1'의 시놉시스는 마무리 됐고 여덟 편의 에피소드 제작도 완료됐다. 방영 시점인 오는 10월까지의 나머지 15개의 에피소드를 모두 제작, 완료할 계획이다. 정교한 파이프라인에 의해 한창 제작중인 '시즌 1'에 이은 '시즌 2'도 이미 기획에 돌입한 상태로 애니메이션을 '원소스'로 하는 부가비즈니스도 동시에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지-스쿼드>는 이탈리아 카툰온더베이 콘테스트의 'THE BEST CHILDREN PROGRAMMING' 이라는 베스트 TV시리즈 부문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KIDS FIRST 페스티벌'의 우수 콘텐츠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HIROSHIMA, BANFF를 비롯한 다수의 해외 페스티벌에 참가해 큰 호응을 얻으며 작품성을 인정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지난해 캐나다 대형 애니메이션 회사인 벨바나와 150만 달러에 달하는 <지-스쿼드> 공동제작 및 배급계약도 체결했다. 벨바나와의 계약으로 에네메스는 이미 제작완료한 시리즈 3편을 8억여원에 배급하고 나머지 23편은 공동으로 제작을 하는 등 프로젝트 전체를 주도할 예정이다. 공동제작은 에네메

스·넬바나·소빅애니메이션창업투자가 각각 30% 가량 자금을 투입하는 70억원 규모 프로젝트로 올 연말부터 1년간 캐나다 YTV, 한국 SBS, 멕시코 텔레비사에 동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06년 2분기 디지털콘텐츠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소스멀티유즈의 전형 창출

에네메스는 또한 <지-스워드>의 어린 소녀 주인공들이 변신을 위해 사용하는 팔찌·파워벨트·머리띠 등의 액세서리를 상품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미 국내 완구회사인 영실업과 완구개발을 협의 중이며, SBS 프로덕션과도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한 중견 온라인게임업체인 윈디소프트와 공동으로 <지-스워드>를 소재로 한 온라인게임 개발도 진행중이다.

에네메스는 이번 윈디소프트와의 제휴로 TV 애니메이션을 원소스로서의 멀티 유즈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며, 윈디소프트는 TV 방영으로 프로모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를 게임화함으로써 게임 라인업을 확충키로 했다.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특히 남자들을 이기고 싶어 하는 소녀 캐릭터들의 모험을 변신과 일상생활 속의 잔잔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로 풀어내고 있다.

애니메이션에 인기를 끌만한 아이템과 각 에피소드별 탄탄한 스토리 전개로 재미와 감동을 한번에 전달하고자 하는 <지-스워드>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의 구미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인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는 파워벨트 게임기 등의 원소스멀티유즈 전략으로 완구와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만날 수 있는 <지-스워드>가 올 하반기 시청자들의 구미를 어떻게 당겨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

